

보성교육청, 보살핌 기초학력 교원연수로 학습복지 힘쓰다

5주간 운영...초기문해력 2과정·기초수해력 1과정 총 3개 과정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특수교사·유치원 교사가 함께 참여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7일, 관내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 및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다함께 보살피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분위기 조성 및 초·중·고등 저학년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2021. 기초학력 책임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연수는 5주간 운영되며, 초기문해력 2과정, 기초수해력 1과정 총 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초기문해력은 학생 수준에 따라 '한글해독'과 '읽기 따라잡기'로 구성하였으며, 기초수해력은 '수랑 놀고 셈이랑 친구해요!' 과정으로

△수감각을 키우는 놀이수업 △재미있게 배우는 수세기와 자릿값 놀이 △조작활동을 통한 덧셈과 뺄셈 과정으로 구성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한 실용연수로 진행된다.

특히,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와 기초학력에 관심 있는 특수교사, 유치원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데, 이를 통해 유·초 연계 한글교육,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집중학년제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 수업나눔으로 학습부진 및 학력격차 해소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 첫날, 초등 2학년 담임교사 류○숙은 "작년 코로나19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가 부족하여 학습부진과 학력격차가 걱정되었는데 '읽기 따라잡기' 연수를 통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전략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연수에 대한 기대와 강한 열정을 나타냈다.

김한관 교육장은 "함께 보살피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열정을 갖고 참여한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학생들이 학습부진과 학력격차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기초학력 프로그램 등의 학습복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보성=김복순기자



광주시교육청, '2021 상반기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전문성 함양 및 산업안전보건법 학교현장 안착 유도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희망학교(기관 포함) 25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인 안전·보건관리자가

지난 5일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꼭 알아야 할 법적서류 작성, 안전

보건 취약 분야 지도·조언, 산업재해 시 후속처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특히 학교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점검 위주 방식이 아닌 관리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와 1대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현장교육에 활용 가능한 직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와 안전보건 스티커북, 안전보건표지 등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상반기 컨설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보완·개선해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선계룡 과장은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학교현장의 산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무안교육지원청,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 뜨거운 참가 열기

"예술과 인문, 기술은 어떻게 만나는가?" 주제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관)은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 (이하 온라인 캠프) 4차 강연을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온라인 캠프 4차 강연은 "예술과 인문, 기술은 어떻게 만나는가?"를 주제로 우정아 교수(포스텍 인문사회학부)의 강연으로 진행되었고, 무안 관내 중·고등학생 11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캠프는 총 48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강연후 질의응답시간에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것을 물어보고 해답을 얻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온라인 캠프 참가자들은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재영 서울대 교수(전 서울대 인문대학장), 김장경 한양대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 석학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5차 강연은 10일 10시 30분 부터 '뉴노멀시대 융합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연자로는 김춘식 교수(동신대 에너지융합기술연구 소장)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줌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 교육장은 "무안의 학생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석학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창의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대학교, 신입생 대학 생활 돕는 증강현실게임 'SCNU Picks' 출시

정보 및 유용한 콘텐츠, 27개 AR/VR 미션으로 게임화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2021학년도 신입생의 대학 적응을 돕기 위해 대학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한 'SCNU Picks' 게임을 최근 출시하고 3주간 운영한다.

'SCNU Picks'는 순천대 신입생이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및 유용한 콘텐츠를 27개의 AR/VR 미션으로 게임화(gamification)한 것으로, 재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지난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올해 두 번째 개시하는 것이다.

는 규정 ▲선배들의 유용한 대학생활 팁 ▲장애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다채로운 교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게임 개발을 주도한 순천대 교육혁신본부 허희욱 본부장은 "게이미피케이션이 신세대 대학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기술·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 활용된 선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SCNU Picks'는 국내 최초로 대학 교육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사례로서 주목 받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혁신을 위해 실질적인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게임 구동 방식은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와 유사하다는 것.

'SCNU Picks' 어플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교내 주요 장소에 가면 GPS 정보를 토대로 해당 건물에서 수행이 가능한 미션이 활성화되고,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적립되는 보상 포인트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순위가 실시간으로 매겨지는 방식이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름다운 교정의 봄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해 우울했을 신입생들이 비록 스마트폰을 들고 홀로 게임에 참여하는 과정이지만, 캠퍼스 구석구석을 누비며 봄기운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션 중 대학의 명물인 교양이 '총장님'(애칭)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땀과 어려운 총장님이나 캠퍼스에서 동고동락하며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양이 같은 친근한 총장으로 남고 싶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순천=김승호기자

